

협상 기대 부채질하는 트럼프, 뒤로는 軍 최정에 급파

이란 협상에 외교라인 투입...“큰 선물 줬다” 낙관론 미 육군 최정에 곧 파견...주일미군 해병대 진입 예상

돌연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닷새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보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 부통령과 국무장관도 협상에 관여한다며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에 한껏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나 동시에 미 육군 최정에 공수사단까지 동원해 중동 지역 병력 증강을 도모하면서 이르면 주말께 지상전 감행으로 급선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마크 웨인 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 참석, 이란과의 협상에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윌코프 중동특사, 말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라인의 최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에 에너지와 관련한 중대 양보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인상을 줄 만한 발언이었다.

협상의 실제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데 동의했으며 이란이 얼마나 간절히 협의를 원하는지 모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개전 한 달을 목전에 두고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좀처럼 마땅한 종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으며 시장과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과,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못 분위기가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 최정에 제82공수사단의 3000명 규모 전투부대를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며 공식 파견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은 육군의 긴급대응부대로, 고도의 전투준비 상태를 유지해 전 세계 어디든 24시간 이내에 배치 가능하다.

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이 중동에 배치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선택지가 한층 넓어진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작전도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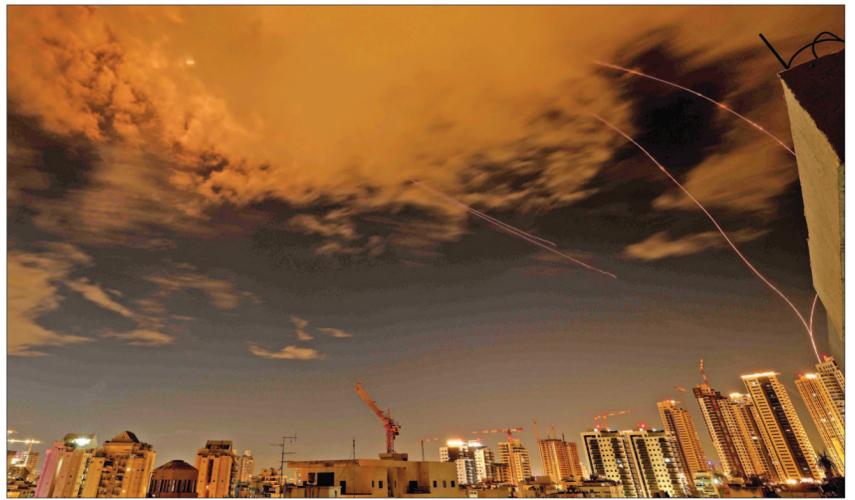
게다가 일본에 주둔하던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뉴올리언스함, 그리고 제31해병원정대 소속 2200명이 27일 미 중부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들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당도하려면 며칠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한 닷새가 27일까지만 잠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다.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미 제11해병원정대도 파견 명령이 떨어질 몇 주 내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닷새의 기한을 전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협상 판을 깨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협상을 없던 일로 선언하고는 위험이 크지만 성과도 큰 작전을 시도한 뒤 전쟁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중동 지역 미군 병력 증강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지상전도 감행할 수 있는 고도의 준비태세로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 측을 밀어붙여 최대치를 얻어낼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좀 더 유리한 출구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란 상황에서 이란도 경계를 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기간의 부담이 있지만 선불리 트럼프 대통령의 손짓에 호응했다가 또다시 크게 뒤뚱수를 맞을 수 있는 우려 탓이다.

연합뉴스



25일 이란 미사일 공격 받은 이스라엘 도시 네타나 상공.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율 36%...이란전에 재집권 뒤 최저”

유가 상승 등 물가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로 재집권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전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가 여론조사기관 인소스와 함께 지난 20~23일 미국 성인 1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에서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4%p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재집권 초기 4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여름 이후로도 대체로 40% 선을 유지해왔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물가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지난주 27%에서 34%로 올라갔다.

연합뉴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